

[사회]

■ 전남대서 열린 삼성·SK 취업 설명회 참관기

“영어외 제2외국어는 기본”

6일 오전 전남대 도서관 지하 1층 종합인력개발센터 취업강의실, SK그룹 계열사의 캠퍼스 취업설명회가 한창이었다. 수업이 많은 오전 시간이지만, 강의실은 200여 명의 학생으로 가득 찼다. 그룹 관계자가 간단하게 올해 모집 요강, 그룹이 원하는 인재상 등에 대해 설명한 뒤, 각 계열 사별 인사담당자가 돌아가며 10분에 걸쳐 본격적인 회사 소개를 시작했다.

참가 학생들은 담당자의 말을 놓칠세라 노트에 옮겨 적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손을 들어 곧바로 물어보는 등 적극적이었다. 김은경(24·법학과 4년)씨는 “막상 입사원서를 쓰려고 들면 ‘대기업이 지방에 출신을 뽑아 줄까’ 하는 생각에 망설이게 되지만, 대기업에 입사해 취업설명회를 나온 선배들을 직접 만나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긴다”고 했다. 정관용(27·경영학과 4년)씨는 “설명을 듣다 보면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을 어느 정도는 가능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2학기가 시작되면서 대기업들의 캠퍼스 리크루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전남대의 경우 삼성그룹을 시작으로 SK그룹, CJ(주), GS칼텍스, 현대·기아자동차, 대우증권 등 30여 개사의 취업설명회가 9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전남대는 지난해 70여 개 회사가 학교에서 취업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올해는 연말까지 100여 개 회사에서 취업설명회를 가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선대와 목포대도 취업설명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대부분의 대기업이 회사설명회와 리크루팅, 채용 면담을 통해 지원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취업을 앞둔 학생들의 호응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기업들도 올해는 학교나 출신에 구분을 두지 않고 기본에 충실한 사람을 뽑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30일 삼성중공업을 시작으로 오는 12일까지 계열사별로 전남대에서 취업설명회와 개별 면담을 실시 중인 삼성그룹은 면접 시 전공과 관련된 전 지식 평가에 대한 상대적 큰 비중을 두는 등 기본에 충실한 사람을 선발할 계획이다. 채용 과정에서 대학 이름은 비공개 되기 때문에 출신 지역과 대학 간 차별은 두지 않는다.

SK그룹은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세계를 무대로 도전하는 사람을 뽑는다고 밝혔다. 올해는 특히 중국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인성·적성·영어능력 외에 중국어가 취업시 평가에 반영될 확률이 높다. 이밖에 베트남, 아랍권 등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문화 등에 능통한 사람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즉시 전력 선발”...학생들 긴장감 역력

“출신학교 차별없다” 설명에 환호도

사람을 선발할 계획이다. 채용 과정에서 대학 이름은 비공개 되기 때문에 출신 지역과 대학 간 차별은 두지 않는다.

SK그룹은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세계를 무대로 도전하는 사람을 뽑는다고 밝혔다. 올해는 특히 중국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인성·적성·영어능력 외에 중국어가 취업시 평가에 반영될 확률이 높다. 이밖에 베트남, 아랍권 등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문화 등에 능통한 사람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6일 오전 전남대 도서관 지하 1층 종합인력개발센터 취업강의실에서 열린 SK그룹 채용설명회에 참석한 학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그룹 담당자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GP 총기난사’ 전역자 국가 상대 소송 제기

지난해 경기도 전방 부대 GP(감시 초소) ‘총기난사’ 사건으로 부상 등 피해를 입은 병사들과 그 부모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모 씨 등 당시 사고가 난 부대원 8명과 이들의 부모 등 24명은 “사고 후유증으로 정상적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

황에 이르렀다”며 국가를 상대로 총 3억2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병사들은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앓았고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의병 전역한 뒤 현재까지도 두려움과 불안 등의 증세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국가가 당시 부대원에게 3천만원씩, 부모들에게 500만원씩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돌출간판 점용료 34% 인하

건설회사들은 돌출 간판에 대한 점용료를 33.9%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돌출 간판 ㎡당 부과되는 도로 점용료는 광주시 등 광역시의 경우 5만8천950원에서 3만8천950원, 그 외 지역은 1만5천원에서 9천900원으로 각각 내린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2007 대입 수능 모의고사 분석

지난해보다 약간 어려운 수준

언어영역 난이도 높고 다른 영역은 비슷

6월 전국적으로 실시된 2007 학년도 대입수능 모의고사가 지난해 11월 실시된 대입수능보다 약간 어려운 수준으로 분석됐다. 입시전문가들은 지난해 수능에서 너무 쉽게 나왔던 언어영역의 난이도가 이번이 높아진 만큼 수험생들이 이에 맞춰 수능 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6월 모의평가보다는 쉬워

대성학원 관계자는 “이번 모의평가는 너무 쉬웠던 지난해 수능 언어영역에 비해 다소 어려웠다. 하지만 6월의 모의평가는 쉽게 출제됐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시간 내에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리와 외국어, 탐구영역의 난이도는 지난해 수능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 입시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중로학원은 이날 실시된 모의 수능 수리영역 ‘가’형과 ‘나’형 모두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거나 약간 쉬웠던 것으로 분석했다. 대성학원도 수리영역 ‘가’와 ‘나’형의 난이도는 지난해 수능과 같은 수준으로 평가하면서 같은

견해를 나타냈다. 하지만 유웨이 중앙교육은 지난해 수능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했다. 외국어와 탐구영역의 경우에도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했다.

대성학원 관계자는 “지시어와 어법, 빈칸 등 읽기 앞 부분에 출제된 문제가 비교적 쉬웠고 뒷부분에 출제된 어휘나 주제, 제목 등의 문제들도 비교적 평이했다”며 “전체적으로 난이도를 보면 지난해 수능과 비슷했다”고 분석했다. 중로학원도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EBS교재와 73~80% 연관

반면 중앙유웨이교육은 탐구영역이 2006학년도 수능보다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EBS는 모의수능 문제와 EBS 강의교재 간 연계율이 영역별로 73.3~80.0%라고 밝혔다. 언어영역의 경우 60개 문항 중 80.0%인 48개 문항이 EBS 강의교재와 연관이 있다고 EBS측은 설명했다. 외국어영역이 78.0%로 뒤를 따랐고 수리 ‘가’형 75.0%, 수리 ‘나’형 73.3% 등이었다. /태대중기자 hwangtae@

5·18 강경진압 거부...고문후유증 사망 故 안병하 도경국장 순직경찰로 등록

국가보훈처 인정

5·18 광주민중항쟁 당시 시민들에 대한 강경진압을 거부해 해임된 뒤 고문 후유증으로 숨진 안병하 전 전남도경 국장이 ‘순직경찰’로 등록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3일 ‘순직’ 등록기관인 서울지방보훈청이 고인의 미망인 전임순씨에게 고인을 순직군경으로 등록해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고인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불법 구금, 고문, 혹독한 심문으로 인해 상이(상처)를 입었고 그 후 유증으로 투병 중 사망했다”며 “공무수행과 법률상, 의학상,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순직’판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안 전 국장은 1980년 광주항쟁 당시 시위진압 경찰관들에게 총기회수 명령을 내리고 시민 권의를 제공한 이유로 강제 해임된 뒤 보안사로 끌려가 고문 당해 그 후 유증으로 88년 10월 숨졌으나 5·18 당시 사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순직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9월 7일 (윤 7월 15일) 전국날씨. Table with columns for location (e.g., 서울, 부산, 광주), weather icon, and temperature range. Includes a map of Korea and a table for the week's weather forecast.

‘노인요양원 반대’ 남구청장 출근 저지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을 반대해온 광주시 남구 봉산동 M아파트 주민 30여명은 6일 오전 남구 봉산동 S아파트 황일봉 남구청장 자택 앞에서 “아파트 옆에 생길 예정인 노인요양 시설을 다른 곳에 건립하라”며 30여 분 간 출근저지 시위를 벌였다. 주민들은 “아파트 바로 옆에 노인요양시설이 생기면 소음과 악취는 물론 교통체증 등 주민 피해가 예상된다”며 “요양시설을 외곽지역으로 옮겨달라”고 주장했다. 이날 일부 주민들은 구청 공무원과 가벼운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별다른 마

찰 없이 시위를 마치고 해산했다. 남구는 올해 4월 노인수발보육제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뒤 국비와 시비 15억원 등 모두 21억원을 들여 노인전문요양원을 건립하거나 시설 부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지난달 21일부터 공사를 중단했다. 한편 주민들의 반발로 지난 21일부터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이 중지된 가운데 공사를 맡은 D건설사는 6일 주민대표 임모(여·55)씨 등 아파트 주민 50여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남부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서민기자 viola@kwangju.co.kr

회식중 과음 사고 업무상 재해 해당

회식 중 과음으로 인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6일 회식 중 과다한 양의 술을 마시다 숨진 신모씨의 아내 김모씨가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선박 안륙의 도장(塗裝) 업무를 취급하는 모 회사의 과장

이었던 신씨는 2005년 3월21일 밤 11시께 회식 중 술도 깨고 아내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확인하기 위해 술집에서 약 50m 떨어진 거리를 걸어나와 소변을 볼 때 과음으로 인해 중심을 잃고 담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주(船主)측 감독관을 접대하고 실무책임자와 협력업체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팀장 지시하에 마련된 회식장에 과장 직책을 맡고 있던 김씨가 팀장 지시를 거부하고 불참하기를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회사가 지배하는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서 업무수행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사무용 가구의 모든것' (Everything for office furniture) with website www.hanboGAGU.com and contact info.

Advertisement for '토치 광주총판' (Torch Kwangju General Dealer) featuring office chairs and desks.

Large advertisement for Sony BRAVIA 2-year warranty service, showing various TV models and contact information.